

“승부조작 진원지 불법 스포츠도박...신고만으로도 예방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공정문화팀

최경화 팀장 “수사권 없어 고발이 전부지만 사이트 차단 등 미리 싹을 잘라내는 게 중요”

이희갑 위원 “갈수록 기업화되는 범죄조직 예방·단속 투 트랙...시민들 신고 적극 활용”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

SAC (Stop&Clean)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부정경기 추방! 정정당당하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 정착!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1899-1119 (www.cleansports.or.kr)
- 한국야구위원회 공정센터 02-3460-4699 (www.koreabaseball.com)
- 대한축구협회 신고센터 singo@kia.or.kr(www.kfa.or.kr)
-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린센터 02-2002-0691 (www.kleague.com)
- 한국농구연맹 클린바스켓센터 02-543-2288 (www.kbl.or.kr)
- 한국여자농구연맹 핫라인 080-077-0909 (www.wkbl.or.kr)
- 한국배구연맹 클린센터 02-6393-5408 (www.kovo.co.kr)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흔히 ‘스포츠도박’으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은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투표하여 이를 적중시킨 이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일종의 스포츠복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합법적 산업인 스포츠도박. 그러나 스포츠를 둘러싼 배팅이 모두 합법적인 틀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이미 합법적 스포츠도박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 같은 불법산업을 매섭게 지켜보는 최경화(64)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공정문화팀장은 “최근 일련의 승부조작 사태는 결국 불법스포츠도박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과 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 팀장은 8월29일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불법시장의 현황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힘주어 역설했다. 이 자리엔 수사 전문가인 이희갑 전문위원도 배석했다. 20년간 경제 분야는 물론 형사·강력계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2011년 승부조작 사태가 공정팀 출범으로 이어져

-스포츠공정문화팀은?
최경화(이하 최) = “우리가 중점을 두는 일은 2가지다. 하나는 전국 6500개에 이르는 판매장을 관리·감독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온·오프라인상에서 차단하는 일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 = “첫째는 판매장 건전화다. 1인당 규정 상한액(10만원)을 지키는 것, 청소년에게 팔지는 않는지 관리한다.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해서 콜센터(1899-1119)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일도 함께 한다.”

-처음 팀이 출범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희갑(이하 이) = “2011년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처음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이듬해 4월 기존 부서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을 함께 다루게 됐다. 나 역시 2012년 6월부터 팀에 합류했다.”

-먼저 합법적 틀 안에 있는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최 = “지난해 기준으로 스포츠도박 총매출액은 3조4천억원이다. 7개 합법사행산업 분야 중 경마(7조7천억원)와 복권(3조3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 크기의 규모다.”



최경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공정문화팀장은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불법시장 최대 31조원 규모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의 규모?
최 =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꼭 집어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합법시장을 뛰어넘은 지는 오래다. 최소 7조원부터 21조원, 많게는 31조원까지 추정치가 다르다. 일단 사람에게 따라선 총 83조원의 불법사행산업 시장 중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언제부터 불법시장이 판을 키웠나.
이 = “이 팀에 오기 전부터 이미 불법시장은 수백억원대를 넘어섰다. 2011년엔 500억원에 이르렀고, 이듬해엔 4000억원 규모였다. 물론 이는 경찰과 검찰이 검거한 불법사이트 운영진의 매출액 기준이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숫자라고 보면 된다.”

-최근 불거진 승부조작 사태는 모두 불법스포츠도박과 끈을 맺고 있다.
이 = “승부조작 진원지는 역시 불법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현재 합법적 스포츠도박은 애초에 승부조작에 이용되기 어렵게 돼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에서 문제가 됐던 ‘1회 불넷’과 같은 항목은 스포츠도박에 없다.”

-일각에선 스포츠도박의 한도액이나 배당 비율이 낮아 이용자들이 불법시장으로 옮겨간다고 보고 있다.
최 = “국가에서 스포츠도박을 공단에 맡긴 건 이유가 있어서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10만원이라는 1인당 한도액이 적다는 점엔 동의한다. 이 문제가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을 키우는 데 영향을 끼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한도액을 높이거나 제한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중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상태로도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범죄 신고와 사이트 차단만으로도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암시적 확산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 = “방지 대책의 큰 틀은 두 부류다.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단속이다. 일단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찰 측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 단속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에 함께 나가는 경우도 많다.”

-콜센터엔 어떤 종류의 신고가 접수되나.
최 = “다양한 신고가 들어온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그 주소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의심 가는 사례도 제보한다. 가끔은 음식점 배달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아지트를 발견해 신고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

-다른 대책엔 어떤 것이 있나.

최 = “안 그래도 최근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로서 어려운 점이 많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를 경찰에 넘기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지를 고발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늦으면 조직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만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것인가.
이 = “갈수록 기업화 되는 범죄조직을 잡아내는 일이 쉽지않은 않다. 조직은 운영팀, 회원모집팀, 해외회계팀, 국내회계팀 등 이미 기업 형태로 규모를 갖췄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 회원들을 모집해 사이트를 키운 뒤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미리 단속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고와 불법사이트 차단만으로도 일정 효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최 = “물론이다. 미리 싹을 잘라내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해서 그 운영진이 사법처리 확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여도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신고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손 안으로 파고든 불법 스포츠도박

모바일도 예외 없다 적극적 예방만이 답

온 국민이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찾고 싶은 것을 찾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도 스마트폰과 함께 거세졌다.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로 점차 낮아져 이젠 중·고등학교 교실까지 불법스포츠도박이 파고들고 있다. 매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경기 상황을 두고 배팅을 시작해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전해지는 ‘추천인 코드’로 인증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 아닌,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배팅 액수에 제한이 없어 고액을 거는 게 가능하다. 또한 합법인 스포츠도박과 달리 단순 승패 외에도 배팅 내역을 세분화해 재미를 쭉 쉽게 빠져들게 한다. 한 경기를 두고 수십 개의 게임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사공간’까지 초월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를 해외에 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꾸며 운영하고 있다.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을 활용하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이용자들은 읍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처럼 배팅내역을 세분화하는 식의 방법이 거론된다. 단속과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도박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dongA.com CHANNEL 후원 : KBO 한국야구위원회 KFA 대한축구협회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 KOVO 한국배구연맹 KDL 한국농구연맹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NPGA 한국프로농구협회 KPGA 한국여자프로농구협회

푸짐한 닭갈비를 이 가격에??!! 와우!

7,500원 (1인분기준)

매운치즈닭갈비 BEST

HONG CHUN CHEON
Spicy Cheese Dakgabi
매운치즈닭갈비

고객도 점주도 함께 웃는 손쉬운 닭갈비 창업

훌랄라의 든든한 브랜드
닭갈비의 대명사 **홍춘천** 과 만나세요

성공이유 하나, **맛있으니까**
매운 닭갈비 요리전문점 - 홍춘천 닭갈비의 맛은 다르다

성공이유 둘, **잘 나가니까**
객단가가 높은 매장영업 - 매출이 눈에 보인다

성공이유 셋, **창업비용이 적게 드니까**
창업대출지원 (개인별 차등)

성공이유 넷, **팍팍 지원하니까**
창업 마스터 지원, 합리적인 재료비 등 (적극적인 상생전략)

점심과 저녁에는 **정성이 가득한 식사로~**
9시 이후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포차주류**
홍춘천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맹문의 1899-3117